

〈삼두구미본〉에서 외부의 내부화와 내부의 외부화

유정월*

〈차례〉

1. 서론
2. 〈삼두구미본〉 서사 구조와 괴물 형상
 - 1) ‘삼두구미’ 서사의 잉여성과 독립성
 - 2) ‘삼두구미’ 형상의 기이함과 비대칭성
3. 〈삼두구미본〉에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
 - 1) 외부의 내부화: 확장과 장악의 실패
 - 2) 내부의 외부화: 잔존하는 외부의 흔적
4. 본풀이에서 외부의 흔적들, ‘그때 만들어진 법’
5. 직선적인 죽음관과 삶의 취약성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무속에 등장하는 〈삼두구미본〉을 대상으로 괴물 서사가 가지는 역동적 문화 현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삼두구미본〉이 지하국 대적퇴치설화와 같은 괴물 서사와 차이점이 크다고 보며, 그 차이는 신성성이나 영웅성의 정도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괴물에 관한 서사를 구성하고 괴물의 형상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다고 본다. 또 삼두구미라는 괴물이 서사화되는 차이는 서사 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서사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의 힘과 역학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전제한다.

〈삼두구미본〉에서는 삼두구미의 서사가 잉여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이하고 비대칭적 괴물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같은 마스터플롯과 거리를 둔다. 〈삼두구미본〉에 외부/내부, 불안/안락함 사이의 갈등은 ‘내부’와 ‘안락함’의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지 않으며 외부를 내부화하고 내부를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외부화하는 상호 영향의 과정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왜 하필 이 텍스트에서 외부는 퇴치된 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표상되고, 서사화되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그것을 직선적이며 파괴적인 죽음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론한다.

주제어 〈삼두구미본〉, 지하국대적퇴치설화, 괴물, 괴물 서사, 내부화, 외부화, 마스터플롯, 죽음관

1. 서론

좀비, 뱀파이어, 반인반수, 도깨비, 귀신 등 우리는 괴물의 전성시대를 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무속에 등장하는 〈삼두구미본〉을 대상으로 괴물 서사¹⁾가 가지는 역동적 문화 현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삼두구미’는 머리가 셋이고 꼬리가 아홉인, 제주도 본풀이에 등장하는 괴물이다. 이 본풀이는 제주도 지역의 이장(移葬) 풍습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삼두구미본풀이〉는 여성이 괴물에게 잡혀간다는 점, 영웅적 존재가 괴물을 퇴치한다는 점에서 일견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삼

1) 문형준은 괴물 서사를 “기존의 근대적-인간중심적-남성중심적 범주가 만들어내는 타자로서, 안에서 밖에서 이 체계모니적 범주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서사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괴물 서사의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괴물’의 존재가 ‘무엇이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상을 벗어난 것으로, 부정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상성은 ‘怪物’이라는 명명에서부터 드러나는데, 한자어 ‘괴(怪)’는 ‘기이하다, 의심스럽다, 정상이 아니다’ 등을 뜻한다. “괴물이 기이한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익숙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정상이 아니면 의심스럽다. 괴물은 그 모든 기이함과 비정상성과 의심스러움의 결집체다.” 문형준, 「괴물 서사란 무엇인가」, 『比較文化研究』 50,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39쪽; Jeffrey Jerome Cohen, “Monster Culture”,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 1996, p.6.

두구미본) 이 지하국대적퇴치설화 같은 괴물 서사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러한 차별성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부수적으로는 일반적인 괴물 서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삼두구미본풀이〉에 대한 기존논의는 이본을 확인²⁾하는 것에서부터 ‘삼두구미’의 정체를 규정하고, 이 본풀이가 불린 의례의 성격을 추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권용은 제주도 특수본풀이를 연구하면서 삼두구미를 “시신을 먹는 괴물”로 보고 제주도에서 이장을 하는 과정에 무당이 개입하는 어떤 제차가 있었을 것이며, 거기에서 〈삼두구미본〉이 불렸을 것이라고 유추한다.³⁾ 현승환은 생산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성인식과 제주도의 이묘 의례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삼두구미본풀이〉가 이러한 의례와 관련을 가지며 특히 몽골의 장제 영향으로 풍장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⁴⁾ 이원영은 삼두구미를 “저승에서의 평안한 안식과 영혼의 삶을 위협하고 잠식하는 죽음의 남성신”으로 보고 이 서사를 이묘 의례, 특히 초분이장굿의 의례와 관련지으면서 삼두구미를 퇴치한 막내딸에게서 초분이장굿 본풀이의 주신으로서 천리신적 신성성을 찾는다.⁵⁾ 김혜정은 삼두구미를 “토신, 무덤 수호신”으로 보고 이 서사가

2) 〈삼두구미본풀이〉 이본에 대해서 논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상정하지만, 신화적 성격을 가지는 자료는 네 편이다. 〈삼두구미본풀이〉의 이본에 대해서는 현승환, 『제주도의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9~11쪽; 김혜정, 「〈삼두구미본〉에 나타난 신의 성격과 서사 형성 배경 고찰」, 『고전과 해석』, 고전과 해석학회, 2017, 368~370쪽; 이부희, 「구비설화에 나타난 식인 모티프의 양상과 의미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7, 46~48쪽; 〈삼두구미본〉과 〈버드나무본〉의 상세한 내용과 차이에 대해서는 이원영, 「〈삼두구미본〉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35, 한국구비문학회, 2012, 231~236쪽.

3) 강권용, 「제주도 특수 본풀이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1, 18~19쪽.

4) 현승환(2009), 앞의 논문, 35쪽.

5) 이원영(2012), 앞의 논문, 249쪽, 255~256쪽.

이상의 명분을 드러내고, 그 당위성 설파를 위해 만들어진 무가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무덤 수호신인 삼두구미를 부정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으며, 그에 맞서는 세력, 새로운 이장신인 막내딸을 새롭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⁶⁾ 또한 신동훈은 삼두구미를 시체를 파먹는 흉한 잡귀가 아니라 “죽음과 파괴”를 표상하는 신 ‘타나토스’⁷⁾로 볼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신호림은 〈삼두구미본풀이〉에 등장하는 땅귀의 이름이 차용된 근원을 밝히면서 삼두구미를 ‘나쁜 전상을 상징하는 용신’으로 보았다.⁸⁾

이상의 논의에서 삼두구미의 정체와 관련 제의에 대한 여러 추론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 텍스트의 의미와 기능을 이묘 의례와 관련해 특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기존논의의 방향과 성과는 삼두구미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텍스트에 규정되어야 할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자들은 서사의 안과 밖, 텍스트 내용과 제의 절차의 관계를 고려하였고, 그러다 보니 등장인물을 그 성격이나 기능으로 바로 호환시키고, 서사와 현실을 직접 연결시키면서 추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삼두구미’의 성격을 규명하기보다는 그 텍스트적 형상에 초점을 두면서 제의와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른 괴물 서사와의 차이를 통해 〈삼두구미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제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제주도 본풀이를 참고하면서 개별 텍스트 연구를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삼두구미본〉에 대한 텍스트 내적 이해 역시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주 대상 텍스트로는 가장 풍부한 모티프

6) 김혜정(2017), 앞의 논문, 392~393쪽.

7)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 신화(개정판)』, 한겨레출판, 2014, 563쪽.

8) 신호림, 『삼두구미의 정체와 본풀이로서의 수용과정 고찰』, 『한국무속학』 34, 한국무속학회, 2017, 137~162쪽.

를 가지고 있고 신화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보이는 <삼두구미본> 9)을 분석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이본들을 참조하기로 하겠다.

<삼두구미본풀이>와 괴물 서사, 특히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와의 친연성에 대해서 연구 초기부터 거론되었다. 현승환은 이 신화가 지하 공간을 설정한 것이나 주인공이 괴물을 퇴치한다는 역할에 있어서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구조적 동질성을 가진다고 본다. 하지만 “대적을 제치하고 셋째 딸을 구출하는 영웅이 없고, 대적에게 잡혀간 여성 그 자신이 지혜와 용기로 대적을 제치한다.”¹⁰⁾는 점에서 차이가 암시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원영은 이 서사가 무가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을 가지기에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차이가 있다는 데 초점을 둔다. 그 신화적 성격으로 삼두구미가 터주신, 즉 지신(地神) 또는 산신(山神)으로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땅귀의 존재적 위상이 높게 상정되어서 그를 징치한 셋째딸의 영웅성 또한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¹¹⁾

본 연구는 <삼두구미본>을 비롯한 <삼두구미본풀이>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같은 괴물 서사와 차이점이 크다고 보며, 그 차이는 신성성이나 영웅성의 정도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괴물에 관한 서사를 구성하고 괴물의 형상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다고 본다. 또 삼두구미라는 괴물이 서사화되는 차이는 서사 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서사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의 힘과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막내딸과 삼두구미의 관계를, 퇴치하는 주체와 퇴치되는 대상, 주종의 관계로 보는 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시각이 먼저 요청되지 않을까 한다.

9) <이춘자 구연본>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46~650쪽).
10) <삼두구미본>의 공간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공간과 마찬가지로 지하이며, 이곳은 타계 가운데 악한 곳으로 그려진다. 현승환, 앞의 논문, 16쪽, 19쪽.
11) 이원영(2012), 앞의 논문, 246~248쪽, 251쪽.

2. 〈삼두구미본〉 서사 구조와 괴물 형상

1) ‘삼두구미’ 서사의 잉여성과 독립성

〈삼두구미본〉 서사 구조의 특별한 점은 다른 괴물 서사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괴물 퇴치 서사라고 할 수 있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서사 단락을 먼저 살펴보자.

- ① 공주(여성)가 괴물에게 잡혀간다.
- ② 용사가 공주를 찾아 나선다.
- ③ 용사가 가는 길에 조력자를 만난다.
- ④ 용사가 지하국(이계)으로 들어간다.
- ⑤ 용사가 지하국(이계)에서 힘을 기른다.
- ⑥ 용사가 괴물을 퇴치한다.
- ⑦ 용사가 조력자 혹은 아내의 배신으로 지하국(이계)에 갇힌다.
- ⑧ 용사가 귀환하여 (배반자를 처벌하고) 결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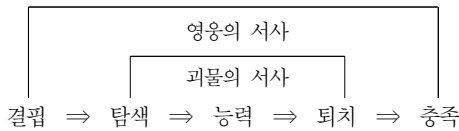
연구에 따르면 자주 언급되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서사 단락¹²⁾은 위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중 ③과 ⑦은 생략될 수 있다.¹³⁾ 생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유형의 기본 통사 구조는 여성의 납치(‘결핍’①)→남

12)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공통 서사에 대한 정리는 논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서예은, 「고전소설 속 지하국 대적 퇴치담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45, 2015, 286쪽; 안기수, 「영웅소설에 수용된 〈지하국대적퇴치담〉의 게임스토리텔링 연구」, 『語文論集』 70, 중앙어문학회, 2017, 268쪽 참조. 본고에서는 김현생의 것을 원용하였다. 김현생은 지하국대적퇴치담을 포함하는 상위 유형의 괴물 퇴치담의 구조를 ① 〈결핍〉 → ② 〈탐색〉 → ③ 〈원조자의 등장〉 → ④ 〈발견〉 → ⑤ 〈위험〉 → ⑥ 〈위험제거〉 → ⑦ 〈배반〉 → ⑧ 〈배신자의 처벌과 결혼〉로 보았다. 김현생, 「한국 괴물 퇴치담의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24쪽.

13) 김현생(2009), 앞의 논문, 48~54쪽.

성의 괴물 탐색(②,④)-능력의 확보(⑤) → 괴물의 퇴치(⑥) → 귀환과 결혼(‘충족’⑧)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괴물 퇴치담은 일종의 마스터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 마스터플롯은 여러 각편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외부의 무시무시한 존재인 괴물에 대한 우리의 공포와 그것을 퇴치하는 영웅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마스터플롯으로 귀결되는 이 퇴치담의 각 단락은 공주(여성)나 용사의 입장에서 서술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속한 세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요약 가능하다는 뜻이다. 오딘에 의하면 이러한 주인공은 영웅으로, “올바른 품행과 성품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영웅은 서사의 수용자들이 감정이입을 하기 쉬운 존재이다. 괴물은 이 세계의 결핍을 만들어 내는 적으로, 그의 존재는 영웅의 행적을 따라 드러났다가 사라진다. 이 괴물 퇴치담의 서사는 크게 영웅의 서사 안에 괴물의 서사가 삽입된 형태로 도식화 가능하다.



이 세계에는 괴물의 등장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성은 납치되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영웅 역시 위협이 있기는 했지만 극복하고 돌아왔

14) 마스터플롯이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며 우리의 근저에 위치한 가치, 희망,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스토리의 뼈대를 지칭한다. 마스터플롯은 비밀스럽게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원형’이라는 용어가 이와 유사한데, 이 용어는 융 심리학에서 사용된 것으로, 다소 낡은 느낌이 있으며 생물학적이거나 정신적인 습관의 일부가 모인 기억 창고라는 의미가 강하다.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역, 문학과 지성사, 2010, 100쪽.

15) 김병욱 외 편역, 『문학과 신화』, 대방, 1981, 182쪽. 김현생(2009), 앞의 논문, 39쪽 재인용.

다. 이 플롯에서 달라진 것은 영웅의 존재이다. 영웅은 이전에 평범한 사람에서 이제 괴물을 퇴치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마스터플롯은 특정한 문화와 개인들의 정체성, 가치관, 삶의 이해를 위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¹⁶⁾ 이 서사는 어떻게 평범함이 특별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한다.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 특별한 영웅이 될 수 있는데, 그 시련은 외부의 두려운 대상과 맞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세계는 괴물로 인해 위대한 인물을 한 명 더 추가하게 된 셈이다. 이 마스터플롯은 이 세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일종의 안락함을 선사한다. 그러한 안락함을 위해 괴물은 일시적이며 과정적으로만 기능하며, 이는 위의 도식에서 괴물 서사가 영웅 서사에 포섭된다는 점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마스터플롯은 특별한 수사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무엇인가를 더 읽거나 덜 읽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롯이 특정 문화 혹은 특정 문화에 속한 개인들에게 유효한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서사가 진리나 보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괴물 퇴치담의 경우 희생자의 서사를 알기 힘들게 하는데, 이는 희생자를 가두고 데려간 괴물의 서사를 덜 읽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스터플롯은 괴물의 서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괴물에게 잡혀간 대상인 아내나 공주가 하는 경험에 대해서도 알기 힘들도록 서사화된다.

삼두구미 역시 다른 괴물들처럼 영웅적 인물을 만나 퇴치되기는 하지만 그 서사는 마스터플롯과 차이가 있다. 〈삼두구미본〉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삼두구미라는 백발노인이 그의 영역에 들어온 나무꾼에게 딸을 달라고 한다.

16) 포터 애벗(2010), 앞의 책, 448쪽.

- ② 삼두구미는 첫째 딸을 데려와 다리를 먹으라고 지시하고 이를 듣지 않자 그녀를 죽인다.
- ③ 삼두구미는 둘째 딸을 데려와 다리를 먹으라고 지시하고 이를 듣지 않자 그녀를 죽인다.
- ④ 삼두구미는 막내딸을 데려와 다리를 먹으라고 지시한다.
- ⑤ 막내딸은 다리를 먹은 척 삼두구미를 속여서 살아남는다.
- ⑥ 막내딸은 삼두구미의 약점을 알아낸다.
- ⑦ 막내딸은 삼두구미를 버드나무로 때리고 달걀, 무쇠로 쳐서 죽을 지경으로 만든다.
- ⑧ 막내딸은 언니들의 뼈를 가져다가 매장하고 살아나려는 삼두구미를 다시 죽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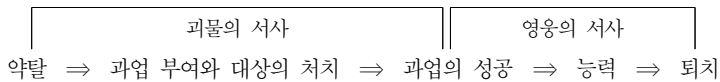
일반적인 퇴치담의 서사가 탐색의 주인공, 퇴치의 영웅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모든 단락들이 이 세계의 인물인 ‘공주’나 ‘용사’를 주어로 해서 요약 가능한 반면, <삼두구미본>에는 괴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가 앞부분에 배치되고 이후 영웅으로 볼 수 있는 막내딸의 서사가 뒷부분에 배치된다.¹⁷⁾ 먼저 막내딸이 주인공인 후반부부터 언급하도록 하자. 막내딸은 삼두구미로 인해 위기에 처하지만 이를 극복하여 삼두구미를 퇴치한 후 언니들(의 뼈)을 찾아 귀가한다. 막내딸은 삼두구미의 약점을 찾는데, 이로 인해 그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상은 괴물 퇴치담의 주인공이 겪는 행로와 유사한 과정(시도⑥-퇴치⑦, ⑧)이다. 이렇게 막내딸의 서사는 괴물의 처치 시도→퇴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괴물 퇴치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반부에 서술된 삼두구미의 서사는 막내딸의 서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된 것으로 막내딸의 서사에 포섭되지 않고 남는다.¹⁸⁾ 이런 이유

17) 현승환(2009), 앞의 논문, 11쪽.

18) 유정일, 「제주도 신화에서 경합하는 가치의 재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44, 한

로 삼두구미 서사는 일반적인 퇴치담의 마스터플롯으로 바로 귀결되지 않는다. 〈삼두구미본〉이 괴물의 서사와 막내딸의 서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괴물의 독립적 서사가 텍스트에 드러남을 의미한다. 〈삼두구미본〉의 앞부분은 삼두구미의 입장에서 서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괴물 퇴치담의 마스터플롯과 여러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퇴치담의 마스터플롯에서는 잡혀간 공주나 부인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기 힘들지만, 〈삼두구미본〉에서는 삼두구미가 데려간 딸들의 경험이 세 번이나 재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서사는 괴물과 희생자의 경험뿐 아니라 괴물의 상황을 보여준다. 삼두구미는 부인에게 자신의 다리를 먹으라는 하고 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다리를 먹지 않은 여성을 죽인다. 괴물의 서사는 괴물을 주체로 하고 부인을 객체로 한다. 여기에서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과업 부여와 실패 확인 및 대상의 처치(②, ③)가 반복된다. 막내딸의 서사가 등장하는 것은 괴물이 부여한 과업을 막내딸이 성취한 것처럼 괴물을 속이면서부터다. 이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 괴물은 영웅과 달리 과업을 받는 자가 아니라 부여하는 자이고, 대상을 구출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이다. 일반적인 괴물 퇴치담의 독자는 주인공에게 쉽게 감정이입을 하지만 삼두구미에게 감정이입을 하기는 힘들다. 계속되는 괴물의 과업 부여와 그 대상의 죽음으로 인해 이 서사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위협의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막내딸은 주인공으로, 서사의 후반부에나 나오기 때문에 이 서사에는 주인공의 등장까지 일종의 지연이 있게 된다. 이런 서사는 앞에 주인공이 부재하면서 위

국구비문학회, 2017, 58쪽.

험이 도래한 상황이 서술되기 때문에 위험을 더 위험한 것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서사는 서사 내부의 위험의 강도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삼두구미의 서사는 막내딸의 서사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잉여적인 것처럼 보이며, 마스터플롯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삼두구미’의 형상에 초점을 두어 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은 <삼두구미본>의 고유성에 한발 다가서는 일이 될 것이다.

2) ‘삼두구미’ 형상의 기이함과 비대칭성

지금까지 <삼두구미본>이 괴물의 서사를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마스터플롯과 달라지는 양상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괴물, 삼두구미의 형상이나 자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괴물이 사는 곳은 괴물의 형상과 유사성을 가질 수도 있고 괴물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삼두구미가 사는 곳은 이 세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이계는 아니다.

터주나라 터주꼴에 삼두구미엔 혼 사람도 아니고 구신도 아닌 백발노인이 살
았습네다 삼두구미 각시가 죽어부난 훗치를 장만홀 궁량을 틀었습네다 흐로는
삼두구미가 신산고질 도올르고 보니 삭다털 흐는 낭꾼을 만나게 되었습네다

나무꾼은 그가 관장하는 신산(神山)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의 화를 사게 된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현실의 산속이 삼두구미가 사는 이질적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계는 종종 땅속으로 그려지기도 한다.¹⁹⁾ 이곳은 이 세계에서 넘나들 수 있다.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가

19) <숫쟁이 딸과 도깨비>에서는 괴물이 방구들을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와라진 귀신>에서는 딸들을 데리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니라는 사실은 이 세계의 인물이 그곳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나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삼두구미의 존재와 형상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다. 도입부에 삼두구미는 사람도 귀신도 아닌 존재라는 서술이 나오는데, 뒤에 삼두구미는 막내딸에게 스스로를 땅귀, 그러니까 일종의 귀신이라고 말한다. 삼두구미는 명명하기 어려운, 경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삼두구미는 습시에 뱀식이 되고/ 머리박은 쇠에/ 꼬랭인 아홉은 혼/ 증상이 되었습네다

백발노인의 모습이었던 삼두구미는 변신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머리가 셋에 꼬리가 아홉인 짐승의 형상이다. 삼두구미는 괴인으로 인해 균형이 결여된 모습이다. 이 짐승의 형상에 대해서는 머리와 꼬리의 갯수만 나올 뿐 어떤 동물과 닮았는지 제시되지 않는다. 이 점은 다른 괴물 서사의 형상과 비교할 때 특기할 만하다. 가령 조마구는 새의 모습에 가깝게, 지하국대적은 돼지, 아귀, 도적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지만²⁰⁾ 삼두구미는 어떤 동물에 근접한지 알 수 없다. 그의 모습은 인간 세계에 유사한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삼두구미가 희생자에게 하는 행위 역시 낯설다. 삼두구미는 데려온 여자에게 다리를 먹게 하는데, 이 다리는 다름 아닌 삼두구미의 다리이다. 이때 삼두구미는 백발노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이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다리를 뽑아주면서 먹으라고 한다. 삼두구미의 다리는 한 번만 뽑히는 것도 아니다.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같은 일을 반복할 때마다 뽑힌다. 다리를 뽑아주고 삼두구미는 마을에 다녀온다며 간다. 다리가 없

20) 여성을 납치하는 대적의 정체를 이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금돼지나 아귀귀신이다. 신승민,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9, 47쪽.

는데 어딘가를 가는, 모순적인 모습이다. 어떻게 걸어간다는 것인지, 걸어 가는 것이 아니면 기어간다는 것인지, 혹은 다른 다리가 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삼두구미는 마을에 다녀와서 여자가 다리를 먹었는지 확인한다. 삼두구미가 다리를 부르면 다리가 “예”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다. 다리를 뽑을 수 있다거나, 그것을 뽑고 나서 걸어서 다닐 수 있다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다리는 개별적 생명체인 것처럼 보인다. 삼두구미는 본체와는 다른 독자적인 지체(肢體)를 가진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 노인의 모습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사지가 작동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삼두구미의 형상과 그의 행위에는 더하기와 빼기의 상상이 있다.²¹⁾ 이러한 상상력은 그 존재를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든다. 지하국대적인 괴물의 경우, 힘이 센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인간이 가진 어떤 요소가 강화된 것이기에 상상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삼두구미의 본체와 지체의 관계 자체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다. 삼두구미 형상은 인간의 관점에서 모순되고 상상조차 불가능한 지점을 포함한다. 이런 점으로 인해 삼두구미는 기이하다. 기이함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동반한다. 그 육체에 대해 우리가 기존에 차용하고 있던 개념과 생각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기이함은 친숙하고 관습적인 무엇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감각이다.²²⁾

21) 스케리는 정신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그 이미지 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인간 능력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1)사출적 점화radiant ignition: 갑작스럽게 빛나는 이미지처럼 정신적 그림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 속도와 에너지를 포함. 2)희귀성rarity: 인지 일부를 일상의 초점에서 벗어나 확대함. 만질 수 없고 지각할 수 없는 사물을 재현함. 3)더하기와 빼기addition and subtraction: 의식으로부터 사라지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4)섬유적 상상. 천처럼 펼쳐거나 접거나 기울이는 것. 5)꽃 가정floral supposition: 네 가지 모두를 써서 상상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문학적 순간. 피터 스톡웰 저,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290~292쪽.

막내딸은 삼두구미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 버드나무, 무쇠, 그리고 달걀의 존재를 알아낸다. 이들은 인간의 삶에서는 전혀 무섭지 않은 일상적인 것들, 사소한 것들이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두구미는 이들을 두려워한다. 같은 물건들을 두고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들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다. 인간에게 큰 쓸모도 없어 보이거나 보잘 것 없는 물건들이 무서운 괴물을 처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삼두구미의 힘보다 강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과 삼두구미의 코드가 상이함을 뜻한다. 삼두구미는 자아의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즉 동일자와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타자이다.²⁴⁾

이렇게 삼두구미의 서사는 잉여적이고 독립적이며, 삼두구미의 형상은 기이하고 비대칭적이다. 삼두구미는 인간에게 낯설고 위험한 존재, 외부의 존재이며 막내딸은 친숙하며 영웅적인 존재, 내부의 존재이다. 〈삼두구미 본〉은 막내딸의 시각과 입장에서 읽거나 수용될 수밖에 없지만 삼두구미 서사가 막내딸의 것과는 별개로 재현되어 있고 그 서사에서 드러나는 삼두구미 형상과 행위의 비대칭성은 물리적인 것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삼두구미는 인간과 이질적인 존재이나, 이들 사이에는 서로 겹치는 공간적 영역이 있다. 인간과 삼두구미는 신산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겹침은

22) 마크 피셔 저,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안현주 역, 구픽, 2019, 15쪽.

23) 기존논의에서는 세 가지 사물이 신성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현승환은 달걀이 난생과 관련되어 신성한 것이고 무쇠는 대장장이가 구할 수 있는 귀한 것이며, 버드나무는 밝음과 탄생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현승환(2009), 앞의 논문, 22~23쪽. 이와 유사하게 이원영은 이 사물들을 영웅만 획득할 수 있는 신물로(이원영(2012), 앞의 논문, 27쪽), 신동훈은 죽음 내지 파괴의 맞은편에 있는 것들로(신동훈(2014), 앞의 글, 564쪽) 보았다. 그러나 이들을 얻기 위한 별다른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일상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도깨비가 말피를, 잡귀가 팔죽을 두려워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일상적인 것들이 이계의 존재들에게는 특별한 가치를 발하는 사례이다.

24) 리처드 커니, 『신, 이방인, 괴물』, 이지영 역, 개마고원, 2004, 143쪽.

이질적인 외부가 친숙한 내부에 잠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각각의 의도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낯설고 친숙함, 내부와 외부의 상대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3. <삼두구미본>에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

1) 외부의 내부화: 확장과 장악의 실패

삼두구미를 중심으로 볼 때 나무꾼이나 그들의 딸은 외부적 존재이며, 삼두구미는 이들에 대해 내부화를 진행한다. 이는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삼두구미는 인간 여성을 데려와 부인으로 삼고 자신의 다리를 먹게 하고 먹지 않은 이는 죽이며, 다리를 먹어야 “자신의 부인이 적실하다”고 한다. 막내딸이 다리를 먹었다고 믿고 나서야 그녀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싫어하는 것들과 그 이유를 알려준다. 삼두구미의 입장에서 ‘다리먹기’는 내부화를 위한 일종의 시험이지만, 딸들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에 위협적이다. 이렇게 외부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내부화의 양상은 의도적이고 강압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삼두구미는 다리를 먹은 처한 막내딸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한다. 이 약점들 역시 그가 내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계난, 영감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 이름은 삼두구미라는 땅귀이다.” “경
흐민 무사 독새기광 버드낭광 무쇿덩인 굿어집네까?” “그것은 천귀가 땅일을
물어올 때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휘야잡아지여도, 독새기광 버드낭광 무쇿안틴
굴아돌랭 흐민, 독새긴 나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엇이난 몰르키엥 마니 털곡
동테레 벌은 버드낭가진 뻗뻗흐니 흐번 후리민 스죽이 칭칭 자령 운신을 못 흐
곡 무쇿덩어런 불에 지더도 아니카곡 빈통이 엇기로 내가 조애를 부릴 수가 엇

이난 곳어진다.”

삼두구미가 버드나무, 달걀, 무쇠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천귀가 땅일을 물어올 때 휘어잡을 수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말도 통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게 하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삼두구미의 입장에서 내부화되지 않는 외부의 것들이다.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일상적인 것,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막내딸은 숨겼던 버드나무 가지와 달걀과 무쇠덩이를 꺼 내놓는데,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 따로 애를 쓰지 않는다. 삼두구미에게 이것들은 외부적인 것, 낯선 것이다. 삼두구미는 이를 내부화하려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하였고 이 사물들은 삼두구미에게 두려운 존재로 남는다.

이상의 일들은 모두 삼두구미의 관점에서 진행된 내부화이며, 그런 점에서 외부의 내부화라고 할 수 있다. 삼두구미에게 내부화란 휘어잡는 것,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다리먹기’ 역시 여성들을 휘어잡거나 다룰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외부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화의 시도는 실패로 귀결된다. 삼두구미는 버드나무, 무쇠, 달걀로 인해 끝내 죽고 마는데, 이것들은 삼두구미가 땅 위의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때 미처 장악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삼두구미의 실패는 태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땅위의 모든 것들을 내부화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삼두구미에게서 이루어진 외부의 내부화 방식인 확장과 장악은 결국 실패한다. 그렇다면 외부의 폭력적인 시도는 인간 세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끝나는 완벽한 실패인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면 삼두구미로 인해 내부 세계, 인간 세계에서 바뀐 것은 무엇인가?

2) 내부의 외부화: 잔존하는 외부의 흔적

〈삼두구미본〉의 후반부가 퇴치담의 마스터플롯과 일치하며, 이런 마

스터플롯이 평범한 인물의 통과제의로 기능하면서 이 세계에 영웅을 남기
다는 것을 고려하면, <삼두구미본> 역시 막내딸이라는 비범한 인물을 이
세계에 남겨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내딸은 영웅적인 행위를 하기
는 했지만 다른 본풀이의 신격과 달리 신성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녀는
<문전본풀이>의 막내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은 가족을 환생시킨 것
도 아니고 신으로 좌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삼두구미와의 경험은 이 내부 세계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
는데, 그것은 신격의 도래라기보다는 이장과 관련한 법이 생성되었다는 측
면이다.

그범으로 금시상에 산을 철리흐 댐 시신을 백보 밖겼디 강 농왕 성복젤 흐곡
철리터엔 독새기 시개에 무쇿덩어리 싯을 문곡 흙을 덕경 버드낭가질 꼬조왕
삼두구미 땅위 방치흐는 법을 흡네다.

묘를 철리(이묘)할 때 시신을 백보 바깥에 놓아서 성복제(成服祭)를 하
고, 철리터에 달걀 세 개에 무쇿덩어리 세 개를 문고 흙을 덮어 버드나무가
지를 꽂아서 삼두구미, 즉 땅귀를 방치하는 법을 한다. 여기에서 서사는
현실과 관련을 맺게 된다. 이는 실제 제주도의 현실에서 행해지는 풍습이
다. <삼두구미본> 이 신화, 시원에 관한 신성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바
로 이러한 법의 기원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장터에 달걀, 무쇠, 버드나무
가지를 묻거나 꽂는 이유는 삼두구미신이 내려와 시신을 찾는 것을 방해하
기 위해서이다. 삼두구미가 시신의 행방을 버드나무에게 물으면 버드나무
는 뻗뻗하게 모른다 하고 무쇠는 먹먹하게 모른다 하며 달걀은 코, 눈, 입,
귀가 없어서 모른다고 한다. 삼두구미신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게 되어 후손들은 동티를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⁵⁾ 제주도의

25) 진성기, 『제주도민속』, 제주도민속연구소, 1969, 202~206쪽.

풍습에서 삼두구미신은 시체를 부패하게 하고 훼손하고 역할을 한다.²⁶⁾

삼두구미는 인간 내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삼두구미로 인해 내부 세계에서 사소한 것들에 불과했던 버드나무, 달갈의 위상이 달라진다. 이것들은 이제 한낱 일상의 사물이 아니라 영험함을 가진 신물이 된다. 이런 사물들의 위상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삼두구미의 존재와 행위로 인해 인간 세계에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 그 전까지 이장을 할 때 인간은 부패와 동티를 감당해야 했다면 이제 적절한 방치를 함으로써 이장을 할 수 있다. 이장에 이러한 제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장이 이미 죽은 시체가 더 취약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장을 할 때 봉합되어 있던 공간이 깨지면서 시신은 낮설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며, 위험 속에서 무사히 이를 재봉합하기 위해 이장의 법이 필요하다. 이장의 법이 생김으로써 내부 세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셈인데, 이 법은 결국 삼두구미로 상징되는 외부가 침입한 결과이다. 이는 인간의 의도나 의식과는 크게 상관없이, 삼두구미의 위협에 인간이 대응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어쩔 수 없이 잔존하게 된 것이다.

삼두구미가 쉽게 죽지 않는 모습은 외부의 끈질긴 침입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삼두구미는 막내딸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며, 약

26)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기이한 존재를 “삼두구미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신’일 수 있을까? 괴물과 신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긴밀하다. 일반적으로 신과 괴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변천을 논하기도 한다. 신성하고 긍정적이었을 신의 이미지가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에 따라 부정적이며 기이한 형상을 가진 괴물로, 그 위상을 달리했을 것이라고 본다. 신이 공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은 문화권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다. 모두 초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이기때 그 공통점을 매개로 신과 괴물은 쉽게 호환되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과거에 괴물은 공포와 미혹의 대상인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었다고 본다. 괴물은 제물과 신화, 가문(家紋), 인간의 꿈과 환상 속에서 교환과 은유의 대상이었다. 근대 들어 이성적 인간/야만적 괴물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괴물은 후자로 정리되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만이 적용되었다. 보드리야르, 『시물라시옹』, 하태완 역, 민음사, 2001, 216쪽; 오현화, 『한국 영화의 여성괴물 재현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23쪽.

점이 드러난 후에도 바로 죽지 않는다. 버드나무 가지로 맞기도 하고 무쇠와 달걀에 쏘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는다. 막내딸이 달걀에 붓으로 천평지평을 써서 삼두구미의 겨드랑이에 끼어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막내딸은 되살아나려는 삼두구미를 버드나무 가지로 때려서 죽인 다음 방아확으로 빵아 가루를 내어서 바람에 날려 보낸다. 자꾸만 소생하는 삼두구미는 외부 세계의 집요한 위협을 표상한다.²⁷⁾ 그러한 위협은 삼두구미 자신의 내부화, 즉 인간 세계에 대한 의도적인 장악과 확장의 시도로 인해 더욱 두렵고 긴장감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삼두구미본>에서 외부는 강한 힘을 가지는 것으로 재현되는데, 그러한 효과의 기저에는 마스터플롯으로 귀결되지 않는 삼두구미의 서사와 삼두구미의 독특하고 기이한 물질적 형상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형상의 기이함 자체가 내부 세계에 미친 외부화의 흔적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통해 살펴볼 때 그 외부의 형상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을 기입하였다. 이러한 ‘법’은 <삼두구미본풀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제주도의 본풀이에서도 확인된다.

4. 본풀이에서 외부의 흔적들, ‘그때 만들어진 법’

앞서 삼두구미라는 외부적 존재로 인해 이장의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그때 만들어진 법”은 제주도 본풀이의 정형구로 일반신 본풀이에 자주 등장한다.²⁸⁾ 이러한 법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 이 논의에

27) <와라진귀신>에서도 이 귀신은 버드나무에 맞아 죽고 나서 환생해서 막내딸의 집까지 찾아온다. 그는 가루로 빵아 떡으로 만들어진 후 새에게 먹이로 던져진다.

28) 전주희는 이를 ‘법지법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성격을 띠는 것들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 <천지왕본> 4회, <할망본> 1회, <마누라본> 1회, <초공본> 7회, <이공본> 1회, <차사본> 17회, <세경본> 7회, <문전본> 4회 나타난

서는 〈차사본풀이〉²⁹⁾에 등장하는 ‘그때 만들어진 법’에 대해 살펴보면 이 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이 텍스트는 특히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두구미〉와 유의미한 비교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음은 〈차사본풀이〉에서 “그때 만들어진 법”이 등장하는 장면을 정리한 것이다.

- ① 원님이 강림을 저승으로 보낼 때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본메(증거물)를 쓴다. 이에 대해 큰부인이 지적하자, “옳타 내가 실수를 하였구나!”라면서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 내어준다. 그때 나온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사람 죽어 명생법이 마련되었다.
- ② 원님이 강림을 저승으로 보낼 때 큰부인에게 “이 입성은 어느 때 차려 놓았느냐?”라고 하니, “벌써 이리 될 줄 알고 지어 놓았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때 나온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사람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저승 입성을 차려놓는 법이 나왔다.
- ③ 큰 부인이 강림이 저승 갈 때 버선으로 다리를 놓는데, 그때 나온 법으로 우리 인간 부부간 법에 열 아기 낳아도 하나의 보람도 없게 되었다. 강림이가 저승 갈 때는 버선이 신고 가도 와서 벗어 버리면 신었던 것 같지 않은 것이 부부간 법이다.
- ④ 강림이 저승 갈 때 문전신과 만나는데, 문전신은 큰부인의 지극정성이 기특하여 가는 길을 안도하고자 왔다고 한다. 그때 나온 법으로 집안에 굶은 일이 있으면 문전 조왕 축원 하면 집안에 굶은일을 멀리 보내게 되는 법이다.
- ⑤ 강림이 저승의 초군문 앞에서 저승 본메를 찾기 위해 전대 허리띠 삼세번 터니 동심절 전차문 자운문 도르륵 떨어졌다. 그때 나온 법으로 사람이 죽으면 동심절 전천문 자운문 하고 품기는 법이다.

다. 이후에 출판된 다른 본풀이 채록본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발견된다. 전주희,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관과 에토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18, 55쪽.

29) 〈안사인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95~230쪽.

- ⑥ 강림이 염라대왕을 포박해서 이승으로 갈 때 염라대왕이 “강림이야, 강림이야, 밧줄 한 코만 늦추어 달라, 인정사정 많이 걸어 주마.” 염라대왕 인정사정 많이 받아 한 코를 늦추니, 그 때 나온 법으로 우리 인간 사람도 죽으면 이 차사가 앞을 서고 이 밧줄로 결박해서 데려가는 법이다.
- ⑦ 무당이 오리정 대령상을 놓고 “살아있는 차사도 차사입니다. 우리 인간 강림차사도 저승을 가서 염라대왕 같이 신수퍼 시는 듯합니다. 강림 차사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니 죽어가던 신의 신방 살아나고, 그때 나온 법으로 시왕당클 밑에 사제상을 세워 시루떡 방식 나갓도전(제차이름)을 쳐 올리는 법이다.
- ⑧ 염라대왕이 백강아지 하나를 내어주고 돌레떡 셋을 강림이의 어깨에 채워주며 “이 떡 조금씩 끊어 백강아지 달래며 이 강아지 가는 데를 따라 가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 겨드랑이 품에 떡을 끊어 강아지를 달래며 뒤따라가다 보니 행기뭇이 가까우니, 백강아지가 달려들어 강림이의 모가지를 물어 행기뭇으로 풍덩 빠뜨렸다. 생사람 잠자다 꿈보다 깨듯이 강림이 눈을 번뜩 떠 보니 이승 길이 되었다. 그때 나온 법으로 사람 죽으면 떡하여 겨드랑이에 품어주는 법입니다.
- ⑨ 백강아지가 강림의 목 앞쪽을 물었기 때문에 여자는 없으나 남자는 목에 뼈가 튀어나는 법입니다.
- ⑩ 적배지를 까마귀에게 주었더니 날개에 달아서 인간세계로 날아오다 보니, 말 죽은 발에 말 잡고 있으니 말 피 한 점 얻어 먹고 가고자 까옥까옥 울다보니 말 잡던 백정이 말발통을 끊어서 던져 맞히는가 까마귀가 날개를 벌렸더니 적배지는 도로록 떨어지고, 담구멍에 있던 백구렁이가 적배지를 움짖 먹어 들어가니, 그때에 나온 법으로 칠성(뱀) 죽은 법은 없어 아홉 번 열 번 환생합니다.
- ⑪ 까마귀 옆에 보니 솔개가 앉아 있으니 “나 적배지 달라, 까옥.” “아니 봤다, 뺨고로록.” 그때 나온 법으로 지금도 까마귀와 솔개는 만나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뜯는 법입니다.
- ⑫ 강림이가 까마귀를 잡아와 문초하는데 말 죽은 발에 들어가 적배지를 잃었다고 하니 강림이 막대기로 까마귀 아랫도리를 후려친다. 그때 법으로

까마귀는 “갈아놓은 밭에 걸음걸이”라 아장아장 걷는 법을 마련하였다.

이상에서 “그때 나온 법”이라는 관용구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 (1) 인간의 문화, 관혼상제나 무속제의 절차나 행위의 유래를 설명한다 (①~⑧). (2) 동물이나 사물의 속성, 특성, 형태에 대한 유래를 설명한다 (⑨~⑫). 이것은 모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에서 물질적, 생물적, 문화적, 제도적 기원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³⁰⁾ 이 법은 본풀이의 등장 인물이 신이 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인물은 시련을 거쳐 신이 되고, 이 시련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계로 떠남으로써 발생한다. 주인공이 이계 즉 외부 세계와 관련을 맺는 과정에서 이 법이 생긴다. 저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고(①~⑤), 저승의 염라왕을 포박하다가 생기기도 하며(⑥),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기도 한다 (⑦, ⑧).³¹⁾ 이 법의 존재는 이전에는 인간 세계에 없던 것이다. 원남도 이승의 본메를 본 적 없고 저승의 행장을 차릴 줄 모른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 다른 신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강림의 행로에 따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강림은 저승으로, 이계로 나아가 결국 차사

30) 강정식은 이를 ‘문화기원’ 대목이라고 하면서 본풀이에 제의적 요소가 추가될 때 이러한 대목이 설정된다고 하였다. 강정식, 『濟州島 당신본풀이의 傳承과 變異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2, 39~40쪽. 전주희는 이를 ‘법지법 사실’이라고 하면서 “인간 세상의 문화·풍속이나 곳의 특정한 절차 및 방식의 기원을 신화 속 인물의 어떤 행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기는 언술”로, 이러한 언술이 “현상의 원인이나 기원을 신화적 사건에서 찾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나 행위를 ‘그럴만한 것’ 또는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속 신앙의 행위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축한다.”고 보았다. 전주희 (2018), 앞의 논문, 56쪽.

31) 이 논문에서는 (2)의 용법보다는 (1)의 용법에 더 관심을 가진다. 대부분의 용법이 (1)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보다는 인간의 문화에서 이 법이 가지는 의미와 자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논지와 더 긴밀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 된다. 이 법은 저승으로의 이동과 저승에서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외적 세계가 만들어낸 내적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차사본풀이〉 외에 다른 본풀이에 등장하는 많은 ‘법’들이 유사한 역할을 한다. 본풀이의 등장인물은 생물적, 정치적, 가족 내적으로 열등한 자신들의 위계를 결국 ‘신’이 됨으로써 전도시킨다. 이러한 전환은 일상을 영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외부(서천서역국, 저승, 서천꽃밭 등)로 떠남으로써 가능해진다.³²⁾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법’은 본풀이 주체의 행로에 따라 외부가 내부에 침입한 결과, 혹은 내부를 외부로 확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본풀이의 신들은 그 직능과 상관없이 내적 세계의 절차와 행위를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영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것은 〈삼두구미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삼두구미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장의 법은 이전에 이 세계에 없던 법으로 외적 세계의 흔적이 내부에 남은 결과다. 삼두구미는 내적 세계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 덧붙이자면 이런 흔적은 텍스트 세계와 그것이 향유되는 현실 세계 사이에 관계를 만든다. 이는 본풀이가 한낱 언어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유형과 무형의 존재에 대한 시초가 됨을 보여주면서 이 텍스트를 강력한 실천적 담론으로 위치 짓는다.³³⁾

32) 무속신화의 주체들은 통과의례의 절차에 따라 분리 → 시련 → 재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분리, 즉 친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로의 이행과 외부의 흔적이 본풀이 사설에 하나의 법으로 기입되는 것은 제주도 본풀이의 특징이 아닐까 한다.

33) 이러한 법의 존재는 본풀이의 현실성과 진실성을 고양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본풀이의 원래 목적이 신의 근본을 풀어냄으로써 신을 청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이러한 법은, 본풀이의 주인공인 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이 실제로 인간 세상에 존재한다면 신 역시 인간 세상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5. 직선적인 죽음관과 삶의 취약성

마스터플롯은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겪게 되는 상황, 인생과 멜레야 떨 수 없는 영원한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갈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서술된다.³⁴⁾ 괴물 퇴치담은 인간의 내부와 외부의 유구한 대립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영웅은 외부의 위협을 물리침으로써 이 세계의 안전함을 확인한다. 퇴치담의 마스터플롯은 불안한 외부를 통제하여 내적 안락함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산물이다. 그 과정에서 이 세계는 위협의 도래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인물, 비로소 영웅이 되는 인물을 가지게 된다. 결국 퇴치담의 마스터플롯이 반복되면서 이 세계는 안전하고 우월할 뿐 아니라 꾸준히 향상 가능한 것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마스터플롯과 거리를 두는 〈삼두구미본〉에서는 외부/내부, 불안/안락함 사이의 갈등이 ‘내부’와 ‘안락함’의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다. 〈삼두구미본〉에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는 일반적인 마스터플롯의 그것과 달리 다소 복잡한데, 외부를 내부화하고 내부를 외부화하는 상호 영향의 과정으로 남기 때문이다. 인간 세계에 남은 이장의 법은 스스로를 확장하고자 폭력적 시도를 한 외부가 날카롭게 기입한 것이다. 삼두구미의 막강한 힘은 괴물 서사의 마스터플롯에 균열을 가해 삼두구미의 서사를 잉여적이고 독립적으로 드러내며, 기이하고도 낯선 삼두구미의 형상을 그 틈으로 밀어 올린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비대칭적 괴물의 형상 역시 강력한 외부가 남긴 산물이다. 결국 〈삼두구미본〉은 이 세계가 정태적이고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낯설고 기이한 외부와 교류한 이종적 세계임을 드러낸다.

왜 하필 이 텍스트에서 외부는 퇴치된 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34) 포터 에벗(2010), 앞의 책, 376~377쪽. 가령 오이디푸스 서사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 사이의 갈등, 즉 행위에 대한 결정론과 자유의지 사이의 보편적 갈등을 보여준다.

것으로 표상되고, 서사화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서사의 외부적 존재가 상징하는 바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시체를 부패시키는 땅귀, 삼두구미는 흠과 죽음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다. 흠은 메마르기도 하고 비옥하기도 하고 썩히기도 하고 싹을 틔워내기도 한다. 흠은 부패와 풍요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지금까지 우리 신화에서 토지신은 곧 곡물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연결되었으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삼두구미는 흠의 또 다른 측면, 파괴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삼두구미의 과잉된 형상은 컴컴하고 음습한 지하에서 끊임없이 웃자라고 뿌리를 펼쳐가는 괴물의 형상이기도 하다.

삼두구미가 출몰하는 지하세계에 묻히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탄생이 시작이라면 죽음은 분명한 끝이 된다. 그러나 삼두구미가 있는 세계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패의 시작이 된다. 삼두구미의 존재는 시신을 온전히 보존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생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그렇다면 삼두구미로 인해 인간은 죽고 썩고 사라지며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적 시간을 살게 된다. 이 세계에서 죽음은 해체와 분해가 일어나는 흑독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다.

〈삼두구미본〉이 드러내는 직선적이며 파괴적인 죽음관의 기저에는 생물학적 패러다임이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무속적 세계에서는 오히려 낮은 것이다. 죽은 이의 혼령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바리공주의 존재나 역할 혹은 바리공주가 불리는 망자천도굿에서 망자의 존재론적 변환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³⁵⁾된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그 외 〈차사본풀이〉와 같은 무속신화들은 죽은 자가 재생하는 과정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진다.³⁶⁾

35) 진오귀 굿에서는 쌀의 자국을 보고 망자가 무엇으로 환생할 것인지 점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불교적 의미의 윤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형근, 『한국무속의 죽음세계 연구: 불교 시왕의 수용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회』 34, 2017, 129쪽.

36) 강유리, 「죽음을 다룬 무속신화의 시간과 공간 구조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무속의 세계에서 죽음은 영원한 것이라기보다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것, 죽음이 환생의 첫 단계인 것처럼 보인다.

〈삼두구미본〉에 나타나는 육신이 부패하는 죽음은, 일견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신화 세계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유표적이다. 이러한 유표성은 결국은 이 신화의 육체라고 할 수 있는 제의가 사라짐으로써 더욱 유표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직선적 죽음관이 제주도의 일반적 죽음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차사본풀이〉 등이 표명하는 순환적 죽음관과 직선적 죽음관이 한때 경쟁하거나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 죽음관의 특징적 부분이 아닐까 한다.

〈삼두구미본〉에서 외부의 잔여로 남은 내부의 흔적은 죽음에 대한 상념과 관련이 있다. 죽어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더 부패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이 〈삼두구미본〉과 같이, 내부에 쉽게 정복되지 않는 외부에 관한 잉여적 서사를 구성했으며 쉽게 물리칠 수 없는 기이한 삼두구미의 형상을 생산했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괴물의 형상은 죽음이 평온이 아니라 침범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더욱 강화한다. 상상의 존재로 인해 죽음의 침범 가능성은 한층 농후해진다.

〈삼두구미본〉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환기되는, 봉합과 균열을 뚫고 잔존하는 외부의 존재가 있다. 이 텍스트를 비롯해서 제주도 본풀이에는 외부의 흔적이 ‘그때 나온 뱀’으로 기입되어 있다. 본풀이와 그것을 향유하는 문화가 외부와 비교적 대등하고 열린 관계를 맺고 있고, 외부에 관대해서 외부를 내부에 끌어들이고 자리를 양보해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논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제주도에서 외부가 유독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내부화하거나 처리하는 데 실패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사

2002, 152쪽. 여기에서는 〈바리공주〉, 〈차사본풀이〉, 〈순님풀이〉, 〈장자풀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 외부의 힘은 상대적인 것이다. 상황에 따라 더 강하게도, 덜 강하게도 치부될 수 있다. 외부를 강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제주도에서 삶의 취약성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풀이를 통해 제주도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논의는 또 다른 지면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창현·현용준 편집·해제, 『風俗巫音(祝祀文)』 (영인본) 下, 탐라문화총서 (12-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경신인쇄사, 1994, 399~415쪽.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20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624~622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7, 564~570쪽.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쪽.
-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 신화(개정판)』, 한겨레출판, 2014, 1~664쪽.
- 리처드 커니, 『신, 이방인, 괴물』, 이지영 역, 개마고원, 2004, 1~515쪽.
- 마크 피셔 저,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안현주 역, 구픽, 2019, 1~212쪽.
- 보드리야르, 『시물라시옹』, 하태완 역, 민음사, 2001, 1~267쪽.
- 피터 스톡웰 저,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1~304쪽.
- J. Cohen, Jeffrey, “Monster Culture”,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 1996, pp.1~336.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논문, 2002, 1~85쪽.
- 강유리, 「죽음을 다룬 무속신화의 시간과 공간 구조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2, 1~160쪽.
- 김현생, 「한국 괴물 퇴치담의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1~172쪽.
- 김형근, 「한국무속의 죽음세계 연구: 불교 시왕의 수용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회』 34, 2017, 65~135쪽.
- 김혜정, 「〈삼두구미본〉에 나타난 신의 성격과 서사 형성 배경 고찰」, 『고전과 해석』, 고전과 해석학회, 2017, 359~401쪽.
- 문형준, 「괴물 서사란 무엇인가」, 『比較文化研究』 50,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31~51쪽.
- 서예은, 「고전소설 속 지하국 대적 퇴치담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45, 2015, 281~311쪽.
- 신승민,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9, 1~165쪽.

- 신호림, 「삼두구미의 정체와 본풀이로서의 수용과정 고찰」, 『한국무속학』 34, 한국무속학회, 2017, 137~162쪽.
- 안기수, 「영웅소설에 수용된 〈지하국대적퇴치담〉의 게임스토리텔링 연구」, 『語文論集』 70, 중앙어문학회, 2017, 261~293쪽.
- 오현화, 「한국 영화의 여성괴물 재현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1~135쪽.
- 유정월, 「제주도 신화에서 경합하는 가치의 재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4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35~62쪽.
- 이부희, 「구비설화에 나타난 식인 모티프의 양상과 의미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7, 1~88쪽.
- 이원영, 「〈삼두구미본〉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35,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227~259쪽.
- 현승환, 「제주도의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7~37쪽.

ABSTRACT

Extern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in *Samdugumibon*

Ryu, Jeong-wol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ynamic cultural phenomena of monster narratives in *Samdugumibon* that appear in Korean shamanism. This study posits that *Samdugumibon* differs greatly from monster narratives, such as the story of eradicating underground national enemies. The difference is not in terms of sacredness or heroism, but in how the work fundamentally constructs the narrative about monsters and reproduces the shape of monsters. In addition, it is premis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narrativization of the monster Samdugumi stems from external forces and dynamics that had no choice but to tolerate such a narrative rather than an internal and technical problem.

Samdugumibon is different from master plots such as the Tales of Defeating Monsters in Underworld Nation, in that the narrative of the monster in *Samdugumibon* exists excessively and independently, and the shape of the monster is strange and asymmetric. In *Samdugumibon*, the conflict between the outside/inside and anxiety/comfort does not result in a perfect victory of “inside” and “comfort.” Unlike general master plo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in *Samdugumibon* remains a process of mutual influence that internalizes the outside and externalizes the inside. Finally, this paper asks why the outside of this text is still represented and narrated as having strong power after being eradicated and infers that it is related to Jeju Island’s straight and destructive view of death.

Key Words *Samdugumibon*, *Tales of Defeating Monsters in Underworld Nation*, monster, monster narrative, internalization, externalization, master plots, view of death

논	문	투	고	일	:
					2022.01.25.
심	사	완	료	일	:
					2022.02.09.
계	재	확	정	일	:
					2022.02.16.